

억센 朝鮮, 굳건한 民族

[新東亞] 卷頭言(1934년 3월호)

쏘콜 運動은 체코슬로바키아 民族을 살려 낸 基礎가 되고 原動力이 되었다. 肉體的으로 衰弱한 民族은 精神的으로 健全하기를 바랄 수 없으며 偉大한 文化를 創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朝鮮民族도 옛날 그 威名을 中外에 날리던 時節에는 朝鮮民衆의 體格 또한 健壯했었음을 볼 수 있다. 不幸히도 李朝 五百年의 文弱과 沈滯는 朝鮮民族으로 하여금 肉體的으로 退殘케 하는 同時에 그 不可避的 結果로는 民族文化 全般에 할 退步를 보게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實로 痛嘆을 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朝鮮에서 새로이 스포츠熱이 旺盛히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實로 最近 數十年間의 일이다. 이 짧은 동안의 努力이나마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이 兩 三年間에 이르러서는 그 結實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朝鮮人 스포츠界도 그 方面에 있어서 國際的 活躍을 보기에 이르른 것은 實로 慶賀할 일이고 또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가지 유감인 것은 朝鮮 스포츠界가 二, 三의 國際的 選手를 내놓았음에 不拘하고 一般的 民衆保健體育의 普及은 아직도 前途遼遠한 感이 있는 것이다. 이 點은 特히 朝鮮 스포츠界에 從事하는 先覺者 諸位들의 覺醒을 促하는 바이다. 二, 三人의 國際的 選手도 貴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難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마는 民族 無窮의 繁榮을 꾀하는 데는 그것보다도 大衆의 保健問題가 더한층 時急한 것이다. 民族的 保健體育의 普及을 促進하는 原動力을 얻기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全朝鮮 體育團體의 統一을 渴望하는 바이다. 全朝鮮을 돌아보아 거의 洞里마다 體育을 獎勵함으로 目的을 삼은 體育團體들이 임의 組織되어 活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유감된 일로는 그들 團體가 아직도 모두 分散되어 있어서 아무런 統一, 아무런 連結도 서로 없는 일이다. 國際的 選手까지 낸 社會에서 한개의 統一된 體育團體조차 없다는 것은 實로 부끄러운 일이다. <新東亞>는 이번 스포츠 特輯을 發行함에 際하여 朝鮮體育團體 統一案을 提案하는 바이니 三千里에 널린 各體育團體로부터의 共鳴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二千三百萬 民衆

앞에 삼가 올리고자 하는 말은 體育界뿐 아니라 우리 民族의 生活 全般에 있어서 오직 스포츠맨십 精神을 굳게 把握하고 스포츠맨십으로써 生活의 指標를 삼기를 바라는 일이다. 個人的으로나 民族的으로나 스포츠맨십을 잃지 않아야 그 將來가 嚮望되는 것이다. 역세계, 굳세계, 快活하게, 남보다 나오려고, 이기려고, 그러나 스포츠맨답게, …이러한 健實한 生活을 目標로 다같이 突進하기를 切望하는 바이다.